

기아차 광주공장 매출 7조 시대 연다

올 48만3천대 목표...생산신기록 2연패 도전

지난해 사상 첫 연간 생산 40만대를 돌파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올해에는 50만대에 바짝 다가선 48만 3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3일 올 생산목표를 48만3000대로 확정, 2년 연속 생산 신기록 도전에 나섰다. 이는 광주공장 사상 최고 생산목표로, 지난해 첫 40만대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던 생산량 41만1196대보다 17.5% 증가한 것이다.

광주공장의 차종별 생산 계획은 쏘울 15만대, 스포티지R 17만8000대, 봉고트럭 10만5000대, 캔센 4만6000대, 군수·대형버스 4000대 등이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광주공장의 야심작 '스포티지R'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지난해 11만1357대 생산된 스포티지R을 올해 6만6000여대 늘려 17만8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같은 목표가 이뤄지면 기아차 광주공장은 매출 7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1998년 5만9864대 생산에 매출 62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생산과 매출이 급성장, 10년만인 지난 2008년 31만

2644대 생산에 매출 4조9000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2009년에는 32만 3066대 생산에 매출 5조5000억원, 지난해 41만1196대 생산에 매출 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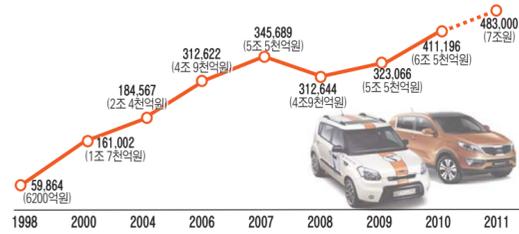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생산라인 가동이 순조로운데다 쏘울과 스포티지R이 북미·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이 없는 한 올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공장은 올해 초 경제상황이 자동차 산업의 3대 악재라 불리는 환율 하락,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조짐이 보이는 등 국제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은 점과 노조의 파업 여부 등이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용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지난해의 노사화합 전통을 살려 상생과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겠다"며 "광주공장이 광주지역 제조업 총 생산액의 24.6%,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이뤄지면 수출 증가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자동차는 23일 국내 판매 및 생산 담당 사장으로 이삼웅(59·사진) 부사장을 승진 발표했다. 이 삼웅 부사장은 기아타이어거즈 사장을 겸하게 된다. 이삼웅 부사장은 "이 삼웅 부사장은 생산 및 노무 전문가로 노무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안정적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아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 연도별 생산량



기아차 시장에 이삼웅 부사장 승진

기아자동차는 23일 국내 판매 및 생산 담당 사장으로 이삼웅(59·사진) 부사장을 승진 발표했다. 이 삼웅 부사장은 기아타이어거즈 사장을 겸하게 된다.

기아차는 "이 삼웅 부사장은 생산 및 노무 전문가로 노무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안정적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아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삼웅 부사장은 기아타이어거즈 사장을 겸하게 된다.

한편 서영준 전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나게 됐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女 블랙&화이트 男 단색 투버튼 수트로 단정하게

롯데백화점 스타일 제안

23일 롯데백화점광주점은 예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단정하면서도 깔끔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회초년생 스타일'을 제안했다.

백화점에 따르면 여성은 가장 기본이며 트렌드인 '블랙 앤 화이트' 수트로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심어주고 전문직 커리어 우편의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는 수트에 밝은 컬러의 트랜치코트 코디가 제격이다. 정장수트가 딱딱하다면 니트와 가디건을 매치한 앙상블 스타일의 세미정장도 권할 만하다.

남성은 활용범위가 넓은 단색의 투버튼 수트가 무난하다. 특히 신뢰감과 정직한 인상을 주는 네이비

블루와 차콜 크레이를 추천한다.

수트는 너무 크면 뚱해 보이고 너무 타이트 하면 경박해 보이기 때문에 사이즈에 신경을 써야 한다. 셔츠는 밝은 톤의 흰색과 하늘색 셔츠가 무난하다. 타이는 145~149cm 길이에 청색 계열의 스트라이프 패턴이나 사선줄무늬, 작은 무늬가 들어간 것이 좋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윤증현 "물가상환 상당히 안좋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물가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대단히 비우호적"이라며 정부가 다시 한번 물가안정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정규·통신 가격 태스크포스(TF)가 조기에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일부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업들이 경쟁력으로 가격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돼 거시경제 안정기반을 저해하고 시민생계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상환 압력의 심각성을 강조해 재차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각국의 긴축정책을 유도해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인간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남뉴스

중소 기술개발 제품 오늘 공공구매 상담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임충식)은 24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성능인증제품과 신제품(NEP)인증제품, 조달우수제품 등 기술개발 제품을 생산하는 23개 기업과 중소기업과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도시공사,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1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상담회를 통해 구매 기관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사 생산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구매 상담 등을 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조업 생산↑ 수출↑ 지역경제 봄바람

韓銀 광주전남본부 경제동향...건설업 취업자 급감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의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제조업 생산은 6.1% 증가해 전달(2.3%)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1월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지난해 12월 85에서 97로 크게 상승했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27.8%), 기계장비(74.5%), 전자부품(25.5%)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남은 식료품(-48.1%), 기타 운송장비(-5.5%) 등이 부진했으나 1차금속(2.9%)의 증가 전환, 석유정제(8.0%), 화학제품(6.4%)의 증가폭 확대로 감소폭을 축소했다.

1월 중 수출은 광주지역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전남지역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28.8% 증가해 전달(8.2%)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또 지난해 12월 중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 판매는 방한 의류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0.9%)세를 유지했지만 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110을 기록했다.



건설협 전남도회 정기총회.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최상준·남화토건 대표이사)는 23일 오전 화순 도곡스파랜드 7층 컨벤션홀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청년실업률 광역시 중 '최고'

2010년 광주 지역 청년 실업자와 실업률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사단법인 광주청년센터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청년 실업자는 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9.1%) 증가했다.

실업률은 8.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평균(8%) 보다 높고,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광양 소상공인 금융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광양 지역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광양시와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자금 지원에 나선다.

협약대출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중 광양시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로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대출기간은 2년으로 연 3.0%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금리와 대출한도, 기간 등은 업체의 신용도와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광주은행은 광양시와 협약을 계기로 이 지역 영세 소상공인업체들이

저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강기 광주은행 부부장은 "이번 협약대출은 지난 2008년 체결한 금융지원협약 일환으로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역 영세 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며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를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기술혁신 강화 국제 협력

日·中 연구기관과 MOU...광주에 3국 공동연구소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가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한·중·일 경제공동체 결성의 첫걸음을 뒀다.

2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략산업의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사업을 위해 지난 21일 일본 키타큐슈시청에서 키타큐슈산업학술을 추진기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4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다롄 진저우신취(大連 金州新區) 관

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다롄 진저우신취 관리위원회와 광·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을 적극 펼치게 된다.

한·중·일의 산업 및 연구 거점 기지 역할을 하는 이들 세 기관은 산업·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정보교환·공동회의·연구개발(R&D) 등 상호교류를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광주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지원단은 지난 21일 일본 키타큐슈 산업학술연구단지 특별회의실에서 전남대, 일본 규슈대, 중국 칭화대 등 3개 대학이 클린에너지 소재분야 협력 연구와 광주에 한중일 공동연구소 설립 및 기술 사업화에 관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동국 원장은 "한·중·일 연구 거점기관 업무협약은 광주 연구개발특구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정보교환·공동회의·연구개발(R&D) 등 상호교류를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게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